

# 에코마케팅 (230360)

기업탐방 브리프 | 엔터/미디어

## NR

목표주가	NR
현재주가	39,350 원
시가총액	6,374 억원
KOSDAQ (6/12)	724.32 pt

## 유튜브 세상의 제일 수혜주

Analyst 김현용 \_ 02 3779 8955 \_ hyunyong.kim@ebestsec.co.kr

### 컨센서스 대비

상회	부합	하회
	●	

### Stock Data

90 일 일평균거래대금	104.89 억원
외국인 지분율	7.9%
절대수익률 (YTD)	251.8%
상대수익률 (YTD)	243.9%
배당수익률 (17E)	0.6%

### 재무데이터

(십억원)	2016	2017	2018	2019E
매출액	17	24	62	104
영업이익	7	8	17	37
순이익	7	8	16	35
ROE (%)	14.2	10.9	19.5	38.5
PER (x)	26.3	84.0	42.3	18.1
PBR (x)	2.6	9.1	7.5	6.7

자료: 에코마케팅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
주: K-IFRS 연결 기준

### Stock Price



### 올해 Video Ad 시장 YoY +38% 고성장 중

- 2019년 1~4월 누적 온라인 동영상 광고시장은 2,51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+38% 고성장 중

- 올해 국내 Video Ad 시장은 전년비 40% 이상 증가한 8,500~9,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디지털 광고시장의 15~20%에 달할 전망

- 프로그래매틱 광고시장은 미국의 경우 전체 디지털 광고시장(19E \$129B)의 35% 비중으로 추정되며, Video Ad 시장(19E \$17B)의 경우는 프로그래매틱 비중이 75% 이상에 달함

### 유튜브향 매출 35%, 페이스북향 25% 차지

- 동사는 고객사 마케팅의 계획/실행/성과측정을 포함한 종합컨설팅까지 아우르는 에이전시. 매체별 매출비중은 유튜브향 35%, 페이스북향(인스타그램 포함) 25%로 Video Ad를 중심으로하는 프로그래매틱 시장확대의 최대 수혜주

- 카카오, 네이버 등 국내 매체들도 결국 유튜브/페이스북을 따라 프로그래매틱 시장으로의 빠른 전환중. 동사는 국가별, 산업별, 고객사별 마케팅 예산의 구체적인 성과 데이터를 압도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어 견제할만한 경쟁사는 전무. 인바운드 영업만으로도 연평균 30%대 매출 CAGR 달성중

### 2Q 실적도 QoQ 플랫 가능, 급등에도 상승잠재력 多

- 1분기 매출액 241억원(YoY +171%), 영업이익 103억원(YoY +415%)으로 격상된 수준이 2분기 유지되고 3·4분기 성수기로 가며 더 올라가는 이익흐름 가능. 이유는 전방산업이 40%씩 성장하는데, 동사의 경우 이미 에이전시 비즈니스 외 성과보수, 직접적인 사업영위(데일리앤코)를 통한 마진 레버리지를 확보한 국내 유일의 기업이기 때문

에코마케팅 목표주가 추이	투자 의견 변동내역											
	일시	투자 의견	목표 가격	과라율(%)			일시	투자 의견	목표 가격	과라율(%)		
				최고 대비	최저 대비	평균 대비				최고 대비	최저 대비	평균 대비
	2019.06.13	변경	김현웅									
	2019.06.13	NR	NR									

**Compliance Notice**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김현웅)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- \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\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\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\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**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**

구분	투자등급 guide line (투자기간 6~12개월)	투자등급	적용기준 (향후 12개월)	투자 의견 비율	비고
<b>Sector</b> (업종)	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Overweight (비중확대) Neutral (중립) Underweight (비중축소)			
<b>Company</b> (기업)	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Buy (매수) Hold (보유) Sell (매도) <b>합계</b>	+15% 이상 기대 -15% ~ +15% 기대 -15% 이하 기대	93.2% 6.8%	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±15%로 변경
				<b>100.0%</b>	투자 의견 비율은 2018. 4. 1 ~ 2019. 3.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(최근 1년간 누적 기준. 분기별 갱신)